

중년기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 경험 의미 탐색

- 전환학습 관점을 중심으로 -

채 은 희·김 영 순*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중년기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과 노후준비
 - 2.2. Mezirow의 전환학습 개념
3. 연구방법
 - 3.1. 연구개요 및 연구참여자 특성
 - 3.2. 자료수집 및 분석
4. 전환학습 관점에서의 노후준비 의미와 성찰
 - 4.1. 부모의 영향과 실천 경험
 - 4.2. 핵심 노후준비 유형과 수준
 - 4.3. 질병 경험의 예측과 계획
 - 4.4. 고독사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안
 - 4.5. 노후준비에 관한 요구와 전환학습 경험
5. 결론

1. 서론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전체 인구 100명 중 14명 정도가 65세 이상 노

* 제1저자: 채은희(인하대학교 박사수료), 교신저자: 김영순(인하대학교 교수)

인층으로 구성된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머지않은 미래에 노인인구가 100명 중 20명을 초과하며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통계청, 2019). 사회의 고령화 현상은 다양한 노인문제와 함께 그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손실과 연결 되는 만큼(김정희, 박지영, 2015; 이정훈, 이한우, 이옥자, 2014), 결코 국가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구체적인 노인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 고령자 일자리의 열악한 문제, 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문제, 황혼의 육아 문제 및 황혼 이혼 문제, 독거노인과 고독사 문제, 노인의 여가와 성(性)에 관한 문제 등이 대두되어 나타나고 있다(제정임, 2013). 이러한 노년기의 문제를 미연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중년기부터의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노후준비란, 노년에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김미령, 2008)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의 노화 현상에서 중요하게 대비해야 하는 사항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특히, 노년기에서의 노후준비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놓일 수 있으므로 보다 이른 시기의 노후준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박현식, 이선형, 최은희, 2010).

결혼이주여성은 2014년 당시 법무부 통계 자료에서 15만여 명으로 집계되었지만, 2017년 15만 5천여 명, 2018년 12월 15만 9천여 명, 2019년 12월 현재 16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된 바와 같이 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법무부, 2019). 결혼이주여성들 중에서도 특히, 언어장벽이 없다는 이점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진입하여 적응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윤혜미, 2009)은 1999년대 유입 당시 20대 내지 30대였다면, 이들은 현재 우리와 같이 고령 사회 안에서 중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한 다문화 사회를 위해 이들의 노후준비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시점이 된 것이다.

채은희와 박미숙(2019)에 따르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 관한 한국인 정주자를 대상으로 한 양적연구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물론, 양적

연구에 의해 수행한 것에 비해 질적연구에 의한 것이 미흡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2009년, 2012년, 2015년에 거쳐 진행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탐색되지 않던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이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서 새롭게 등장한 점이다(여성가족부, 2019).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정주자 10명 중 3명 정도만이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한 반면, 결혼이주자들은 10명 중 6명 정도가 노후준비가 되었다고 답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중년에 접어들지 않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지혜(2015)의 연구에서는 이들의 노후생활기대는 높았으나 노후준비 인식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모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노후준비 인식이 낮은 이유로는 자녀나 국가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노후준비에 있어서 개인의 맥락과 이전 경험의 영향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 중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중년기를 맞이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경험적 내용을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해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질적연구가 양적연구로는 탐색하기 어려운 개별 연구대상의 독특성과 맥락성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접근하는 시도라고 보았을 때(유기웅 외, 2015), 이들의 결과는 아직 중년기를 맞이 않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후준비와 관련된 선행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이 다른 유형들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채은희, 박미숙, 2019), 한국의 정주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노후준비 역시 ‘경제적 노후준비’로 나타났다(이미영, 2017). 그러나 노후준비가 경제적 노후준비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면 나머지 신체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교적 순탄하게 살아온 삶 속에서 잡자기 질병을 얻게 되거나, 요즘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 등을 생각한다면 노후준비는 경제적 노후준비만이 아니라 신체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등 상호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채은희, 박미숙, 2019)됨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외로움,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 등으로 인해 자살관념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보건복지부, 2015). 그러므로 이주배경만 다를 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 역시 한국인 정주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노후준비’만을 중요하게 인식할 것이라는 가정을 갖게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전환학습의 관점에서 신체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의 확장을 도모하기 때문에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내러티브 탐구와 Mezirow(2003)의 전환학습 과정을 활용해 노후생활기대 및 노후준비 인식을 확인하고 노후준비와 관련된 ‘이성적 담론’을 제공함으로써 간과하기 쉬운 부분에 대한 성찰을 이루고자 한다. 특히 Mezirow의 전환학습에서는 혼란스러운 딜레마 상황이 경험되어야만 비로소 전환학습의 장이 마련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아직까지 노후준비에 관한 구체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중년의 그들이라면, 이 시점에서 던져지는 ‘노후준비’에 관한 담론은 지극히 혼란스러운 딜레마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를 통해 현재까지 간과하고 있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을 확장하고 미래성찰을 이루어 낸다면 그것으로도 매우 큰 의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이들과 함께 보다 잘 늙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첫째, 중년기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전환학습 관점에서 중년기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 성찰 내용은 무엇인가 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중년기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과 노후준비

노후준비에는 주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로 나누어 설명이 가능하다(채은희, 박미숙, 2019). 그러나 여기에서 ‘노후준비’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 요소의 삶의 질과 직면하게 된다(채은희, 2019). Gross, Crandall & Knoll(1973)은 소득과 건강의 하락, 은퇴 후 직면하게 되는 고독 등의 문제를 미리 예상하여 준비함으로써 노년기가 되었을 때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석상훈 외, 2011: 재인용).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미리 대비한다는 것은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노후준비와 관련해서는 노년기가 아닌 중년기 또는 그 이전의 시기를 적절한 시기로 보고 있다(배조문, 2011). 그만큼 보다 이른 시기의 노후준비야 말로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았을 때, 시기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중년기는 개인적·사회적 활동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지만, 인생의 중반에서 재조명되어지는 삶과 가족 안에서의 역할 변화를 통해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김애순, 윤진, 1993).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난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음은 중년기가 갖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접할 수 있는 노후준비에 관한 담론은 미래 성장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중년기를 맞은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을 반추해 보자. 2018년 기준,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는 일명 ‘조선족’이라 불리던 그들은 약 212만 명으로 확인되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는 인구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조선족일 뿐, 그 외에는 기타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와 같이(최미화, 2018), 한국 내에서도 중국계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 정도가 조선족으로 확인되고 있다(법무부, 2019). 이들은 일제 강점기 중국으로 이주한 후 60년 동안 왕래가 없다가 1990년대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한국으로의 이주가 활발해졌다. 이들은 한국인 정주자들과는 언어와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동질성’과 ‘국적의 이질성’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이지용, 2011). 그러나 결혼이민자들 중 가장 높은 귀화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기존의 편견과는 달리, 많은 인적 네트워크와 직접적 접촉을 통해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황해영, 2018). 이들은 한국인 정주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보편성을 획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주배경’이라는 특수성은 차별감과 편견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이들은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 한국에서의 성공적 적응을 목격하고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지만, 이주 후 처음 겪게 되는 차별감과 편견은 시댁 안에서 처음 경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지속적 노력과 인내, 변화의 유동성을 발휘하고 불가피할 경우 순응을 선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한국사회 내에서의 안정적 적응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순 외, 2019). 특히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원만한 경제적 수준은 한국 내에서 이들의 생활세계를 형성하는 필수요소로 작용되는 만큼(설동훈, 2005), 이들의 이주에서 안정적 적응의 요소의 하나인 경제적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 선행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재외동포와 한국인 정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을 갖춘 재외동포들은 건강한 신체와 함께 주변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활동에 더 높은 주관적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 정주자들은 경제적 노후준비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미영, 2017), 이는 나지나 외(2010)가 재정적 자원이 풍부한 자만이 경제적 노후준비가 가능함을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인 정주자들의 현재 재정상태가 그만큼 풍부하지 못함을 반증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박현식과 최옥자(2012), 성지혜(2015)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미흡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다른 노후준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못하는 한국인

정주자들의 현실을 확인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함이 강조된 바와 같이 실제로도 우리 사회 노년의 빈곤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이 연구자는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동질적인 문화를 가진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 역시 한국의 정주자들과 비슷한 인간 삶의 보편성을 획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출발하고자 한다. 실제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 내용이 부족지만,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국인 정주자보다 이들의 노후준비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결과로 보더라도, 이들의 ‘이주배경’이라는 특수성은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행위와 연결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삶의 질을 결정함에 있어 오로지 경제적 능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음을 이해한다면 전환학습의 관점에서 신체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래의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자원을 통제한다고 보았을 때,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고려된 성찰을 통해 확장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2. Mezirow의 전환학습 개념

Mezirow의 전환학습은 1960년대 성행하던 사회적 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은 Kuhn(1962)의 개념을 전환학습이론에 적용한 것이다(Finger & Asún, 2001; Kitchenham, 2008). 이는 다양한 인종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을 통합시키려는 미국의 지역사회개발에서 지적, 실천적 토대가 되고 있다. 전환학습은 성인학습의 하나로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중시한다(강경리, 2017). 이러한 변화는 특히 인지과정에 초점을 두어 인식의 변화가 실천으로 연결됨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성인학습에 비해 매우 역동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환학습 과정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 관계성을 포함한다(Taylor, 2007). 이러한 특성은 역시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질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전환학습에서의 관계성을 통해 자신의 신념에 대한 스스

로의 비판적 견해와 다른 사람들과의 담론을 통해 관점을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다(Mezirow, 1995).

전환학습 관점에서 다룬 선행연구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참여 경험을 연구자의 관찰과 연구참여자의 성찰일지를 통해 관점의 변화를 탐색(김도현, 2016)하거나, 역시 연구참여자의 성찰일지와 심층면담을 통해 교육대학원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을 전환학습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강경리, 2017). 또한, 중국계 결혼이주민의 진로개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인지변화를 전환학습 관점에 기초하여 그 경험의 의미를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시켰으며(정지현, 김영순, 2018), Mezirow의 전환학습 과정 중 ‘비판성 성찰’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이주민 설화조사 연구 전문가의 다문화감수성 발달과정을 탐색하였다(김영순, 오영섭, 2019). 이처럼 전환학습은 주로 인간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방법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있어 보완적 자료로써 전환학습(transformative learning)의 이론 중 Mezirow의 4단계 학습 과정을 중심으로 이들의 노후준비 경험과 의미 내용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Mezirow(2003)의 전환학습 4단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험(experience)의 단계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사건을 만날 때, 혼란스런 갈등을 경험하며 시작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현재의 고단한 삶에 치여 자신의 노후준비에 관해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를 얻지 못한 그들이라면 이 시점에서 당면하게 될 ‘노후준비’에 관한 직면은 충분히 혼란스런 경험이 될 수 있다.

둘째, 비판적 성찰(critical reflection)의 단계는 단순한 경험에서 벗어나 그 경험을 특정의미로 구조화하고 자신의 신념에 대해 스스로 비판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노후준비에 관한 자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스스로 반성해 보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셋째, 이성적 담론(discourse)은 사람들의 믿음, 가치, 감정 등에 대해 평가할 수반하는 대화를 포함하는 논의를 통해 변화시킬 방법에 대해 토의하는 것이다. 이는 노후준비에 있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신체적 노후준비

에 관한 담론으로써 ‘내가 만약 갑자기 아프게 된다면.’과 사회·정서적 노후 준비에 관한 담론으로써 ‘고독사에 대한 인식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토의함으로써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의 확장 및 관점전환의 핵심이 된다.

넷째, 행동(action) 단계에서는 위의 과정을 통해 얻은 인지적 관점전환(perspective transformation)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행동과 관련된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전환학습 과정 분석틀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전환학습 과정 분석틀

과정 단계	내 용
경험	혼란스러운 갈등을 일으키는 경험의 단계
비판적 성찰	경험에 의해 자신이 가진 가정들에 대한 성찰 단계
이성적 담론	본인이 변화되거나 발전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토의를 통해 적절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
행동	비판적 성찰과 이성적 담론을 통해 관점수정, 태도 수정, 의사결정, 문제해결 등의 실천적 행동의 단계

※ 출처: 강경리, 2017; 이희수, 정미영, 2010 재구성.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험’ 단계에서는 중년기에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된 ‘노후준비’라는 혼란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신 부모의 노후준비를 회고하고 그 영향과 실천 행위를 경험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비판적 성찰’단계에서는 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노후준비 유형과 함께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을 성찰하고 그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얻으며, ‘이성적 담론’단계에서는 ‘내가 만약 갑자기 아프게 된다면...’과 ‘고독사’문제에 대한 담론을 통해 신체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행동’단계에서는 노후준비에 대한 요구와 전환학습의 경험으로써 관점의 전환을 이루어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개요 및 연구참여자 특성

이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관계적 탐구(relational inquiry)’로써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사람과 특정 사건의 관계를 중시한다(김영순 외, 2018).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 삶의 경험 자체를 하나의 중요한 지식과 이해의 근원으로 존중하는 방법론 중 하나이다(Clandinin, 2007).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노후준비 의미와 성찰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성을 통해 본 연구에서 진행될 전환학습과정에서의 ‘비판적 성찰’과 ‘이성적 담론’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전환학습 역시 관계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Taylor, 2007)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관계성을 담보로 전환학습의 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참여자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연구자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연구자의 ‘자서전적 내러티브’를 통해 연구의 정당화를 구현하게 된다(Clandinin, 2016). 이에 연구자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주력하다가 40대 중반에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간과하고 있던 신체적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확장은 미래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이어졌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년기의 위치에 놓이게 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아직까지 특별한 발병경험이 없다면, 연구자처럼 경제적 노후준비에만 주력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시작으로 신체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 인식의 확장을 위해 전환학습과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35세에서 60세 사이에 해당하는 중년기(김명자, 1998)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 선정은 본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기관의 연구교수인 중국동포 출신 박사의 소개로 처음 소개 받은 후, 눈덩이 표집으로 진행되었다(유기웅 외, 2015). 연

구자 소속 대학의 지역 특성상,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인천지역 거주자들이 되었다. 그 외에도 동 대학 내에서 진행 중이던 이중언어강사 보수교육에서 지도교수의 도움을 얻어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지원자 추천을 받아 진행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이름에는 익명을 붙여 사용하였다. 연구 시작 전, 이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뒤 참여 동의에 대한 지면의 동의서를 얻었다. 무엇보다 연구참여자들이 연구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불편한 감정이 들지 않도록 텍스트 전 과정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의 타당성을 위해서는 참여관찰이나 연구자 저널, 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연구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들로부터 연구 진행에 대한 피드백을 얻으며, 자료 분석이나 해석 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분야 전문가와 협력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전 과정에서 참여자들과의 지속적 관계를 통해 그들의 의견이나 이야기의 적합성에 대해 묻고, 이를 연구 텍스트 작성 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가 5명의 특성은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다음 <표 2>와 같이 구성해 보았다.

<표 2> 연구참여자가 특성

연구 참여자	나이 (남편)	국적 (년도)	결혼년도 (차수)	자녀 (나이)	학력	직업	가구월 소득	주거 형태	부동산 (자동차)
A	41 (51)	한국 (2004)	2001 (19)	1녀/1남 (19/18)	대졸	연구직	1,200 만원	자가 (APT)	4채 (1대)
B	42 (55)	한국 (2017)	2004 (16)	1남/1녀 (16/8)	고졸	단순 노무직	350 만원	자가 (빌라)	1채 (없음)
C	45 (50)	한국 (2004)	1999 (21)	1녀/1남 (21/19)	고졸	단순 노무직	500 만원	자가 (빌라)	1채 (2대)
D	51 (58)	한국 (2004)	2000 (20)	1남 (20)	박사 수료	다문화 강사	600 만원	자가 (빌라)	3채 (1대)
E	44 (43)	한국 (2014)	2008 (12)	1녀/1남 (11/9)	고졸	중국어 강사	300 만원	전세 (APT)	없음 (없음)

연구참여자 A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출신으로 연구참여자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리지만 가계경제 수준은 가장 높았다. 그녀는 그 혼한 정수기 한 대 드러놓지 않고 마실 물을 끓여 먹을 정도로 절약하며 가계자산을 늘려 나아가고 있었다. 남편은 연구참여자 A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적금통장을 보여주며 청혼 했고 그녀는 그런 남편에게 신뢰감을 느꼈다.

연구참여자 B는 중국 산둥성 연태시 태생으로 경제관념이 철저하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남에게 빚지는 것을 싫어해 오로지 현금만을 주고 집을 매입한 그녀는 앞으로 현금 2억 모으기가 꿈이다. 중국에서 사업하던 남편은 연구참여자 B를 만나 결혼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자 2년 전 한국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현재의 월급생활을 힘든 시기로 여기고 있지만, 그녀 개인적으로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을 처음으로 얻게 되어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연구참여자 C는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태생으로 결혼 전의 자신은 ‘온실 속 화초’, 결혼 후의 자신을 ‘잡초’로 표현하고 있었다. 만난 지 반년 만에 식을 올린 후 남편만을 믿고 한국행을 결심하지만, 고된 시집살이와 남편의 무능력 탓에 온갖 고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친정 부모의 지원으로 시댁에서 분가하고 생활비 지원을 받은 적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남편만 성실하게 일해 준다면 그녀의 미래는 매우 희망적일 것으로 믿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D는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서 태어났다. 동네 유지로 통하던 아버지의 뒷바라지 덕분에 여동생은 대학교 교수가, 남동생은 한국의 대기업의 중국지사장이 되어있었다. 동생들보다 못한 자신의 처지로 인해 그녀의 삶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반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해 지병을 얻은 어머니를 통해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삶을 제일로 여기게 되었다. 신학을 위해 한국유학을 결심했지만 이내 회의를 느낀 그녀는 남편을 만나 아들 하나를 얻은 후 아이의 차별 경험을 계기로 다문화교육전문가에서 사회활동운동가로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E는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태생으로 연구참여자 중 유일하게 남편이 같은 중국동포 출신이었다. 본 연구는 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 사이의 문화경험을 다룬 내용이 아닌,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이

므로 그녀를 연구참여자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E 부부는 엄밀히 말해 결혼이주부부인 셈이다. 그녀는 학창시절 친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바람에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재혼한 친정아버지가 먼저 한국 귀화를 선택했고, 부부는 둘째 자녀 출산시기에 귀화하게 된다. 친모의 죽음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장애에 시달리던 그녀는 중국에서 접한 신앙을 통해 치유를 경험한 이후로 신앙은 그녀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되고 있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

이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이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경험적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방법으로써 내러티브 탐구를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반구조화 질문지를 바탕으로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3개월에 걸쳐 개인 당 2회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대화의 집중도를 위해 1회 면담 시간은 최대 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장소는 연구참여자 자신이 원하는 집 근처 카페나 조용한 강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시간은 참여자 퇴근시간 이후나 주말 휴무 시간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의 장점 중 하나는 전문상담사 자격을 갖춘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들과의 초기 관계형성 및 면담 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했다. 즉, 면담 과정에서의 연구자 공개를 포함하여 연구참여자 자신이 보다 깊이 있고 풍부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상담 장면에서 사용되는 반영이나 명료화, 직면 등이 적절히 활용되었다. 또한, 통상적인 자료수집방법보다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대화를 통한 관계적 현장 텍스트를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자료는 대화의 전사본, 관찰일지, 연구자 저널 등이 포함된다. 이에 자료 수집을 위한 반구조화 질문지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질문으로 결혼 전과 후, 그리고 결혼 과정에서의 생활이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질문이 이루어졌다. 반구조화 질문의 특성상 부모와의 관계에서 특히 부모의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었다. 둘째, 노

후생활기대와 노후준비 인식에 관한 질문 내용이다. 셋째, 전환학습 관점에서 '내가 만약 갑자기 아프게 된다면.'과 '고독사에 대한 인식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담론을 나누었다. 넷째, 지금까지의 면담 경험과 함께 노후준비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다루었다. 이러한 내용은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진 반구조화 질문지의 특성 상, 이야기에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전개 되었다.

위의 과정을 통해 확보한 면담 자료들은 전사 작업을 거쳤다. 전사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연구참여자와의 대화 내용은 문장단위 1을 시작으로 평균 250 내외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 대화 내용에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 연구 피즐을 만들어 그 의미의 조각을 맞추는 형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을 때 부여된 고유번호는 자료 분석에 있어 매우 용이하게 사용되었다.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분석은 자료를 세분화하기보다, 이야기된 경험 그 자체와 전체의 이야기성 안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Ezzy, 2002),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이야기 전체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위해서라도 고유번호를 활용한 연구 피즐의 완성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를 면담 날짜가 아닌 부여된 고유번호를 활용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분석은 자료를 세분화하여 이해하기보다, 이야기가 가진 의미를 해석해야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각자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의미에 다시 하나의 피즐로 완성함으로써 이야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제3의 의미까지 발견해 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오로지 연구자의 상상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는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된다(Clandinin, 2016).

이런 내러티브 탐구 과정을 참조하여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각각의 의미를 Mezirow(2003)의 전환학습 과정 4단계를 중심으로 범주화한 후 하위 주제를 도출시켰다. 본 연구의 목적이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이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와 관련한 경험과 성찰, 그리고 담론을 통한 전환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이들의 노후준비의 의미를 과거의 경험, 현재의 노력, 미래의 예상 등 전환학습의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4. 전환학습 관점에서의 노후준비 의미와 성찰

이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중년기를 맞이하게 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노후준비라는 그동안 성찰하지 못했던 발달과업에 대한 혼란스러운 경험의 가정 하에 출발하였다. 이에 전환학습의 관점에서 관점전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노년기 준비의 의미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Mezirow의 전환학습 4단계 과정을 바탕으로 노후준비의 의미와 성찰 내용을 다음 <표 3>과 같이 도출하였다.

<표 3> 전환학습 관점에서의 노후준비 의미와 성찰

전환학습 단계	상위범주	하위범주
경험	부모의 영향과 실천 경험	부모세대를 준거로 삼은 자기 성찰
		미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절약생활 실천
비판적 성찰	핵심 노후준비 유형과 수준	미래 불안에 대비되는 경제능력 강화 인식
		노후준비수준에 대한 상대적 자기 성찰
이성적 담론	질병 경험의 예측과 계획	회피하고 싶은 질병 경험
		직면을 통한 노후준비 인식의 확장
	고독사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안	고독사에 대한 인식 확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모색
행동	노후준비에 관한 요구와 전환학습 경험	노후준비에 관한 사회적 요구
		전환학습 관점에서의 성찰 내용

Mezirow의 전환학습 과정에서 ‘경험’단계에서는 노후준비에 관한 부모의 영향과 그 실천 경험을, ‘비판적 성찰’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노후준비 유형과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이성적 담론’단계에서는 질병 경험의 예측과 경험 측면에서의 내가 만약 갑자기 아프게 된다면, 고독사에 대한 인식과 예방적 차원에서의 문제해결 방안이라는 담론을 통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미래 예측을 통해 성찰을 이끌어 내었다. ‘행동’단계에서는 노후준비와 관련된 사회적 요구와 성인학습으로서의

전환학습 경험 내용을 탐색한다.

4.1. 부모의 영향과 실천 경험

4.1.1. 부모세대를 준거로 삼은 자기 성찰

연구참여자들의 부모 즉, 중국동포들은 대부분 생활력이 매우 강한데다 풍족하지 않지만 개인들이 준비한 노후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 부모 대부분은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땅을 스스로 경작하기 힘들어 재임대를 놓거나 구입한 부동산을 통해 임대수입을 얻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한국에서 번 돈을 부모에게 보내는 경우의 예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국에 있는 딸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목격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연구참여자들은 생활력 강한 자신의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동일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저희 아빠 영향을 받은 거 같아요. 제가 자랄 때는 부모님이 경제에 대한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용돈은 얼마인데, 그 이상을 받은 적도 없고, 그 용돈도 그 선에 맞춰서 써야 되거든요. 만약에 있는 돈 다 쓰고 ‘돈 더 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경제관념이 엄청 엄격했어요. 만약에 돈이 더 필요하면, 대가를 치러야했어요. 설거지를 하던가, 방청소를 하던가, 신발을 정리하던가, 운동화를 직접 빨아 쓰던가, 이렇게 해서 주지, 그냥은 안 줘요. 그래서 제 아들도 용돈 받으려면 설거지를 하거나 자기 방 청소를 하거나 그래야 돼요.”(연구참여자 B)

“저는 굉장히 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 사실 제가 오늘도 늦어서 택시타고 왔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반찬 먹으려고 준비해 놓고, 빨래도 돌려서 넣고, 그러다보니까 약속시간을 늦은 거예요. (오우~ 부지런하시다!) 하하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되게 부지런하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늘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성격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근데, 엄마처럼 열심히 못 하는 거 같아요. 하하하. 엄마가 내 나이 때는 경제적 기반을

다 잡고 있었는데, 저는 아직 아니잖아요. 지금 진행형이잖아요.”(연구참여자 C)

연구참여자 B는 용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만 용돈을 주던 친정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신의 중학생 아들에게도 이를 행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친정 부모님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면 안 된다는 관념이 철저했다. 다만, 그녀는 그러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반면, 그녀의 아들은 마지못해 하는 것으로 보였다. 즉, 부모의 경제관념을 물려받은 연구참여자 B는 철저하게 부모의 영향을 실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자녀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C는 보따리 장사로 가계자산을 늘린 친정 부모의 지원으로 시택으로부터 분가하는가 하면, 무능력한 남편을 대신해 생활비까지 원조해 주신 부모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었다. 친정어머니의 깔금한 성향을 물려받았지만, 어머니의 경제적 능력은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던 그녀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반성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어머니만큼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4.1.2. 미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절약생활 실천

이주배경을 안고 들어온 이들의 한국생활경험은 어떠한가. 이들은 주로 ‘티끌 모아 태산’과 ‘안 쓰는 것이 버는 것’을 이해하고 절약생활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들의 근검절약이 노후준비를 염두에 두고 실천하고 있다기보다, 미래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씀씀이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이주배경’은 한국 사회에서 잘 정착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미래 불안과 연결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아! 정수기, 저희는 물을 끓여 먹어요... 아, 저는 왜 생수를 안 마시냐면, 요즘 다 택배로 시키잖아요. 택배 아저씨들이 너무 힘들게 배달해요. 물이 사실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한 번 시킬 때 하나 안 시키잖아요. 금액 맞추려고 많이 시키면 그게 들고 오시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배달 안 시키고 오

히려 끓여 먹는 게 편한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A)

“저희 남편이 하루에 얼마씩 쓰라고 넣어 줬어요. 만 원 정도 이렇게 넣어줘서, 만원, 2만원, 만원, 2만원, 이렇게, (하루에?) 네, 초과하지 말라고, 저는 한꺼번에 많이 쓰거든요. (그럼 돈 관리는 남편이?) 아니요. 제가 해요. 그런데 남편이 방법을, 아이디어를 줘서 봉투에다가, 홀수인 날은 만원 넣어주고, 짝수일 때는 2만원 넣어 줘서, 오버하지 말라고, (그럼 그걸로 반찬해요?) 네, 그렇죠. 그러나 애들 용돈은 따로 주고, 제 용돈도 따로 있고, 제 용돈도 따로 주더라고요~ 하하하.”(연구참여자 E)

연구참여자들 중 가계자산이 가장 많고 가구월수입도 가장 높았던 연구참여자 A는 자동차 1대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가정집에 흔하게 있을 법한 정수기 한 대 없었다. 게다가 명품가방 하나 없이 에코백을 들고 다니는가 하면, 지극히 수수한 옷차림과 다르게 그녀의 미소에는 삶의 여유가 묻어났다. 그녀는 정수기 렌탈료보다 생수 배달비가 훨씬 저렴함을 알고 있지만, 배달기사의 수로를 생각하여 그냥 집에서 물을 끓여 마시고 있다고 했다. 한 마디로 연구참여자 A는 낭비하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절약행위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신도시에 분양받은 아파트 2채에 대한 중도금 상환을 생각한다면 정수기 렌탈과 명품 가방은 현재로서는 낭비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녀의 삶의 만족은 남에게 보여 지는 여유가 아닌, 내적으로 경험되는 마음의 여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연구참여자들 중 유일하게 전세에 살고 있는 연구참여자 E는 월수입 또한 가장 낮았다. 가구월수입 중 3분의 1 정도 저금하고 나머지로 한 달 생활을 해야 하는 그녀는 남편의 제안으로 생활비를 통제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E는 면담과정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전부 쓰라면 쓸 수 있다고 했던 바와 같이, 현재의 씬씀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안정적 자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녀의 가계지출 중 상당부분은 교회의 헌금으로 납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전부 쓰라면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바와

같이 가게지출에서 신앙생활로 인해 지출되는 항목이 가게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E의 남편이 직접 나서서 생활비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4.2. 핵심 노후준비 유형과 수준

4.2.1. 미래 불안에 대비되는 경제능력 강화 인식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노후준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연구참여자 B는 처음엔 신체적 노후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자료 분석을 통해 경제 활동이 가능한 신체 건강이 중요한 의미로 작용됨을 확인하고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노후준비가 경제적 노후준비임을 해석할 수 있었다. 반면, 어느 정도 경제적 여력을 갖춘 연구참여자 D는 말로는 경제적 노후준비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자료 분석을 통해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노후준비는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노후준비 유형은 연구참여자의 답변과 자료 분석을 통한 의미 해석에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노년에 되도록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원했지만, 불가피한 경우 양로원 입소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양로원의 열악한 환경을 간접 경험한 이들은 시설 좋고 서비스 좋은 양로원 입소를 위해서라도 경제적 노후준비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었다. 무엇보다 설동훈 외(2005)에서 밝힌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그들의 생활세계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경제수준에 따라 적응의 수준에 차이가 존재함을 강조한 바와 같이, 이들이 경제능력강화에 힘쓰는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거기는 간호사 다 계시고, 물리치료사 다 계시고, 다 계시는데, 거기 계시면 우리도 식사 걱정 안하고 거기 계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돈도 걱정 안 되게 저희가 다 알아서 나눠서 낼 거고 그런데 왜 그러시냐고 하고 그러고서 저녁에

신랑이랑 퇴근해서 가봤더니 저라도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당장 퇴원 소
속 할 테니 오늘 당장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다시 알아봤는데 그때 고모님이
자주 가던 정형외과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는 당연히 비싸죠~!”(연구참여자 A)

“당연히 경제적이죠... 만약에 몸이 아파도 경제적으로 완비가 되면 그건 치
료하면 되는 거죠.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어도, 내가 받고 싶을 때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하면 물론, 돈을 벌 수 있어서,
건강하다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연구참여자 C)

시어머니의 간병 경험을 통해 열악한 요양병원을 간접 경험하게 된 연
구참여자 A는 시설 좋고 서비스 좋은 양로원 입소를 희망하게 되었다. 그
렇기 때문에 노년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경제적 기반
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함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안락하고 편안한
노년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자원 통제는 마땅한 결과인 것이다.

연구참여자 C 역시 아프더라도 경제적 기반이 튼튼하다면 얼마든지 극
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몸만 건강하기보다 건강한 몸을
기반으로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처럼
이들은 열심히 일하여 번 돈을 절약생활을 통해 충분히 통제 가능한 경제
적 노후준비의 기반을 가장 신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신체적 노후준비는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반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개인의 노력으로 통제 가
능한 경제적 노후준비를 통해 미래 불안을 해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2.2. 노후준비수준에 대한 상대적 자기 성찰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노후준비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함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A만이 중국에 있는 교사
로 정년퇴직한 친정어머니와 현직 교사인 언니에 비해 자신이 훨씬 낫다고
인지하는 반면, 한국의 다른 주변인들에 비해서는 아직 중간 정도 수준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참여자 A의 노후준비 수준은 경제적

기반을 기준으로 친정가족에 비해 훨씬 높다고 지각하는 반면, 한국 내에서는 중간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듯 노후준비의 관점은 타인과 비교 시 지극히 상대적인데다 관점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후준비는 같이 그냥 지금부터 해야 하는 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노후준비를 해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지, 그걸 실천에 옮기지를 못해요... 남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젊으니까 그거는 잘 생각 안 해 봤지만, 한 30%? 생각만 있지, 실천은 안 옮기니까, 하하.” (연구참여자 B)

“저는 200만원 좀 넘어요. 학교에서만 받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다른 강사료를 받으니까 ... 바로 아래 여동생은 길림성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님이예요. 남동생은 한국 대기업의 현지 사장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저는 공부만 하고 봉사만 하고 다니니까 생활은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중국가면 제가 많이 자괴감이 느껴요. 왜냐면 동생들은 다들 잘 되어서,”(연구참여자 D)

연구참여자 B는 자신의 노후준비를 남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앞으로 더 열심히 실천해 나아가야함을 성찰하고 있음이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도 그럴 것이, 현금 2억 모으기가 꿈인 그녀에게 현재 몇 천 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연한 저축기대가 노후준비 인식으로 확장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연구참여자 D는 한국 안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게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중국 가족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부족함이 경제적 노후준비가 기준이 되었다면, 한국 안에서 수많은 유리천장을 경험한 연구참여자 D만이 사회·정서적 노후준비가 기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질병 경험의 예측과 계획

4.3.1. 회피하고 싶은 질병 경험

연구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45세로 현재까지 특별한 질병 경험이 없는 것이 특징적이다. 단, 가장 나이가 많은 연구참여자 D만이 지난 건강검진에서 의심소견이 있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며 과거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을 뿐,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을 때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미담이 확인되었다.

인생에서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는 질병경험은 수많은 좌절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만큼, 자칫 이와 같은 질문은 연구참여자들에게 혼란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심리학자인 Elizabeth Kübler-Ross(1975)의 말처럼 “만약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미루기 쉬워지지만 곧 맞이할 아침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했을 땐, 하루하루가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된다.”와 같이 생명의 유한성을 수용할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건데, 아프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됐어요. 하하. (근데 그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지금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누나도 그러니까 어머님 딸 인거죠. 누나도 유방암 수술을 했고, 주변에도 아는 언니들도 암은 한두 명은 있고 그래서 진짜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 보지 않았는데, 음, 아저는 저도 저지만 신랑이 조금만 아프면 저는 무조건 병원 데려가요.”(연구참여자 A)

“피하고 싶어요. 그런 쪽으로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괜히 잘못된 생각이 현실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괜히 잘못된 생각하다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봐 겁나고, 그렇지 않아요? ... 아~ 그럼 저는 심각할 거 같아요. 언니네 아저씨처럼 알뜰하시고 생활비 다 갖다 주시고, 용돈도 안 가져가고, 그런 여건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럼 우리 집은, 풍비박산 나요.”(연구참여자 C)

연구참여자 A는 연구자의 질문에 매우 혼란스러워 했다. 뜻대로 잘 살아 온 자신의 인생에서 던져진 이번 질문은 스스로 직면하기보다 남편의 이야기로 회피하려는 시도가 다분했지만 시어머니의 간병 경험과 주변의 질병 경험을 통해 되도록 아프지 말아야겠다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질병경험이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음을 이해하는 순간, 이는 또 하나의 미래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연구참여자 A는 담론 과정에서 회피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통해 발견된 미래 불안을 토대로 관점전환의 기회를 얻은 것으로 짐작되었다.

연구참여자 C 역시 가정 내에서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도맡아 온 탓에 ‘내가 만약 갑자기 아프게 된다면...’이라는 질문 앞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야말로 말이 씨가 될 수 있으니, 그러한 말은 떠올리기조차 조심스러워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생활력이 약한 남편 때문에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던 그녀의 입장에서는 이제야 겨우 마음잡고 배송서비스사업을 시작한 남편을 통해 미래에 대한 핑크빛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내가 만약 아프게 된다면.’은 한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는 위태로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 역시 질병경험은 피하고 싶은 사건 중 하나로 여겼다.

4.3.2. 직면을 통한 노후준비 인식의 확장

‘내가 만약 갑자기 아프게 된다면...’이라는 질문은 연구참여자들에게는 하나같이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경험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담론을 통해 아직 자신에게 닥치지 않은 일일 뿐, 머지않은 미래에는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경험으로 받아드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담론을 통해 미래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있었다.

“아프면 어쩔 수 없죠 ... 치료에 전념해야죠.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고 하잖아요. 건강이 최고, 뜻대로 되지 않겠지만 노력은 가능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럼 또 악화 돼서 또 살겠다고 병원 치료 받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돼요.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죠. 아무리 먹고 싶은 것도 자제를 하고, 건강에 좋은 거 챙겨 먹어야겠죠.”(연구참여자 D)

“병에 걸렸으면, 으음, 저는 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치료도 열심히 받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일을 하고 그렇게 살면 되죠.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아프다고 해서 다 절망하고 중단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살던 삶대로 살면서 치료도 받아야겠죠.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되겠죠 ... 으음, 주변 사람들을 봐도 다 열심히 버티고, 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잘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마음을 굳게 먹고 사시는 거 같더라고요. 치료 잘 받고 그러면 괜찮은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E)

연구참여자 D는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해 병석에 누워계신 어머니보다, 자식을 뒷바라지도 모자라 어머니까지 돌보고 있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었다. 어찌면 이러한 어머니를 통해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노년을 소망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녀는 ‘내가 만약 갑자기 아프게 된다면...’이라는 답론에서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치료 열심히 받아 스스로 자립할 수 있기를 희망했으며, 그래도 만약 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요양원에 입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연구참여자 E는 신앙인답게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그녀 역시 주변의 경험을 통해 치료 잘 받으면 나올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마음가짐 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의 강인한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경험을 통해 요양원 입소에 관한 다소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녀 역시 요양원에 입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적으로 신앙에 의지해 현실을 극복해 나아가려는 시도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4.4. 고독사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안

4.4.1. 고독사에 대한 인식 확인

일본의 한 노인이 자택에서 고독사 후 시신이 9년 만에 발견된 사건으로 일본사회가 한동안 충격에 빠진 적이 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지역 주민을 활용해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묻는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제정임, 2013). 이에 고독사를 바라보는 연구참여자들의 인식확인 및 그 대안에 관한 탐색은 사회·정서적 노후준비의 의미와 성찰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내가 만약 갑자기 아프게 된다면...’보다 간주관적인 입장에서 고독사에 관한 담론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 네, 혼자서 죽는, 아 그거는 좀 처참할 거 같아요. 그런 거는 무섭기도 해요. 아무도 없고 혼자서 있다가 가는 거니까 그건 너무 허무할 거 같아요... 고독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요양원 같은데 들어가야 되나? 하하하... 그러니까 내가 사회활동을 하면 사람을 만나게 마련이고, 사람을 만나면 친분이 생기니까 지속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해요.”(연구참여자 B)

“지금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낮가리고 하지만, 늙어서 힘이 없으면 그건 저도 생각을 해야죠. 사람이 현실에 맞게 살아야지, 사람이 나이 들면서 생각도 달라져야지, 내가 젊을 때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젠 노후에 힘이 없는데, 그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자식들한테 못 받으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죠. 고독사로 죽는다는 건 좀 너무 슬픈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C)

연구참여자 B에게 고독사는 처참하고 무섭고 허무한 사건이었다. 고독사는 혼자 고독하게 죽음을 맞는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상황이 상상되었을 때, 매우 처참하고 무섭고 허무한 사건으로 받아드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사 하지 않기 위해서는 몸이 아프면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고독사 문제를 적극 예방해야함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보다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

게 여기던 그녀는 주변의 친구들 때문이라도 자신은 고독사할 일이 없을 것으로 여겼다. 즉, 고독사는 자신에게 만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로 받아드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연구참여자 C 역시 고독사를 슬픈 일로 받아드렸지만, 주변과 소통하지 않고 고립적으로 살아가려는 개인의 성향문제로 보고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녀는 현재 주변 사람들과 원활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노년이 되면 현실을 받아드리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독사 문제는 강인한 정신력과 생활력으로 무장한 그녀에게서 조차 피하고 싶은 사건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다.

4.4.2.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모색

고독사 문제 역시 ‘내가 만약 갑자기 아프게 된다면...’과 마찬가지로 연구참여자 자신들에게만은 일어나지 않기 바라는 사건 중 하나였다. 고독사의 문제를 주로 개인의 성향문제로 보는 경향이 높았지만, 만약 주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같은 개인적 노력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사회복지시스템의 적극적 도입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독사요? 지금은 사회에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안됐다. 근데 나름대로 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받아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좋아져서 고독사가 줄어들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래도 지금 노인 치매도 국가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앞으로 사회복지를 많이 늘려야한다고 생각해요. 고독사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것도 그 나름인 거 같은데, 그것도 건강하면 상관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혼자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은 방치해 두는 거, 지금 시민단체에서 하는 거 봤는데,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체계적으로 돌봐 주는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아직 없어요.”(연구참여자 D)

“고독사에 대해서? 고독사는,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 고독사에 걸릴 것 같아요... 교회 나가서 애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고독사할 일이 없을 거 같아요... 제가 독거노인이면 교회 가서 많이 봉사할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 되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간혹 일 끝나고 집에

가면 고독할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성경 읽고 책 읽고 하면, 고독할 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독사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E)

연구참여자 D는 고독사의 문제를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드려야 하는 개인의 문제로 보면서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사회적 자원을 활용한 시스템의 확대를 역설하고 있다. 역시 사회실천가답게 외국의 사례를 들며, 보다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개인의 사회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앞의 일본의 사례처럼 국가의 부담은 줄이면서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자원봉사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독거노인을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E 역시 고독사의 문제를 개인의 성향문제로 보지만 다른 노후준비보다 특히 종교를 통한 사회·정서적 노후준비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만은 고독사할 일이 없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므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처럼 끊임없는 신앙생활을 통해 거듭나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연구참여자 E는 처음 심층면담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신(神)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고 밝은 연구자에게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냐며 염려를 표현했던 내용과 같다.

4.5. 노후준비에 관한 요구와 전환학습 경험

4.5.1. 노후준비에 관한 사회적 요구

연구참여자들에게 자신의 노후준비를 위한 국가 요구를 물었을 때, 이 연구자는 이들의 답변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연구자는 이들이 주류사회가 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지만 그와 반대로 노년의 국가 보장으로 인한 자녀세대의 부담을 먼저 걱정하고 있음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앞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후준비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함으로 받아드리고 있지만, 대신 자녀 사교육

지원과 같은 자녀 지원 부담을 국가가 덜어준다면 노후준비의 개인적 노력은 충분히 가능해 질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거기에 우리 둘째 유아 비까지 하면 한 100만원 정도 나가는 거죠. 생활비를, 거기서 맞춰갖고, 노후를 위해 적금 못 하죠 지금, 그러니까 애가 어릴 때 적금을 해야 된다고 다들 그러는데, 큰 애랑 둘째랑 차이가 너무 크다보니까, 그러니까 작은 애는 유치원비랑 먹는 거랑, 정부지원 받아 갖고 하는 거랑해서, 먹는 거 빼고 해서 한 4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큰 애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연구참여자 B)

“해 주시면 뭐, 노인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있으면 자립할 수 있고 노인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으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좋겠죠. 복지도 해 주면 좋지만, 그러면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잖아요. 노인들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일해서 움직이고,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은 복지 혜택을 받아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 좋고 그렇죠...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뭐 동포라고 해서 특별히 뭐 차별대우가 없이, 똑같이 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다 똑같이 산다고 하면 몇 십 년을 살게 될 텐데, 그때 가도 다문화, 다문화 그러는 것 보다는 똑같은 사람이고 같은 국민으로 대하면, 적대감은 없겠죠. 특별히 더 잘 해달라기 보다는, 똑같은 대우를 하면 큰 불만은 없을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E)

현금을 좋아하고, 현금 2억 모으기가 꿈인 연구참여자 B는 중학생 아들과 8세 딸의 교육지원 때문에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2억을 모으면 어디에 쓸 것인지 물었을 때, 다시 자녀들에게 지원해 주고 싶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여가를 즐기고 싶다고 밝혔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타이트한 일상생활로 인해 변변한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그녀의 바람대로 자녀지원을 국가가 지원해 준다면, 노후준비의 발판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참여자 E 역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지만 노인복지를 늘릴 시 자녀세대의 부담을 걱정하고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특혜보다 정주자와 이주자를 똑같이 대우해 준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어려움도 함께 감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이들은 이주자로

서 주류사회 내에서의 혜택을 기대하기보다, 한국사회 안에서 같이 늙어가는 집단 구성원으로서 동일시하고 있음이 발견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4.5.2. 전환학습 관점에서의 성찰 내용

마지막으로 전환학습 과정에서 이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관점 전환의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우선 신체적 노후준비와 사회·정서적 노후준비가 개인의 노력으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없음을 이해하면서도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개인이 가장 통제하기 쉬운 ‘경제적 노후준비’를 통해 다른 유형의 노후준비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가 포착되었다. 다시 말해, 경제력으로 건강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해 보려는 시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노후준비 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고 있음이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노년에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특별한 건강관리방법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연구의 참여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노후준비 내용을 스스로 성찰하고 있었다. 즉,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노후준비 인식으로 확장된 결과이다.

“스스로도 매일 생각을 하는데 맨날 목표를 세워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올 해 벌써 6월이잖아요. 올해 초에 세웠던 목표 중에 이제, 체중 감량이 있었는데, 노력은 하는데 영, 사실 별로 효과가 없어서 운동을, 네, 운동을 잘 안 해요. 네,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아 그리고 저희가 큰 애랑 사실 스페인 순례길 가보자하고 내년에 생각하고 있어요. 애가 고3인데~ 하하. 내년에 고3인데 순례 길을 한 번 가자, 종교는 없어도 그래도 가고 싶어서 그 애길 하다 보니 음 영어가 좀 딸릴 것 같다 해서 영어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 그리고 체력이 있어야지 여행도 가능할 거 같더라고요.”(연구참여자 A)

“아,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네? 이런 느낌? 상담도, 이런 얘기 편하게 하지 않잖아요... 으음, 한국이 아직은 그래도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

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져요. 한 번도 저도 이런 생각 한 적 없었거든요. 그냥 나라에서 뭐 국제 결혼한 사람들에게 뭐 해준다고 하면, 아 이거 그냥 형식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혜택을 받으면서도 약간의 의심이 든다는 거? 그런 거 있었거든요. 아~ 우리도 이제 이 나라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니깐, 아~! 이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연구참여자 C)

경제적 노후준비는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다른 노후준비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던 연구참여자 A는 이 연구의 참여를 통해 신체적 노후준비를 위한 건강관리와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로서의 여가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성찰하기 시작했다. 연구참여자 C 역시 이 연구의 참여를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노후준비 내용을 확인함은 물론, 과거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시혜적이고 형식적인 노력을 경험하며 의심의 마음이 들었다면, 이 연구의 참여 경험은 자신도 한국 사회 안에서 함께 늙어갈 존재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전의 경험에서는 이주자와 정주자라는 분리를 통해 이질감을 경험했었다면, 이 연구의 참여 경험은 이들에게 동질감이 경험된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우리 사회 안에서 중년기를 맞이하게 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노후준비’라는 담론을 제공하기 위하여 Mezirow의 전환학습과정 4단계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준비 의미를 확인하고 관점전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영향으로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는 없었다. 그러므로 노후준비라는 사건은 충분히 혼란스러운 경험이 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참여

를 통해 노후준비의 의미를 찾고 스스로 미래에 대한 성찰로 이끌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에게 부족한 노후준비 유형을 스스로 탐색하고 결핍된 부분을 극복해 나아가야겠다는 관점전환의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노후준비 유형은 ‘경제적 노후준비’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한국인 정주자들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박현식, 최옥자, 2012).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을 턱없이 부족하게 여기고 미래에도 더욱 노력해 나아가야할 목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이성적 답변에서 다루었던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예측이나 고독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들은 모두 피하고 싶은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활용해 치료에 전념하거나 노년에도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의지하지 않고 요양원에 입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열악한 요양원 환경을 간접 경험한 이들은 시설 좋고 서비스 좋은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라도 현재의 근검절약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었다.

셋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전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제적 노후준비는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의 정주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박창제, 2017). 그러나 신체적 노후준비나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노년기에서의 국가지원보다, 자녀양육기에서의 자녀지원 부담을 국가가 줄여준다면 노후준비의 개인적 노력을 보다 확대해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의 전적인 국가 지원은 자칫 자녀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함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결론을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하나같이 건강하게 오래토록 경제활동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정보가 매우 부족해 보였다. 이에 경제적 노후준비 뿐 아니라, 신

체적, 사회·정서적 노후준비를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즉, 경제적 노후준비에 기반을 둔 금융권의 금융홍보에 가까운 편향적인 노후준비 교육이 아닌, 자금운용방법이나 건강하게 오래토록 경제활동하며 고독사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 대한 강구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노후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그 적용에 대해 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노후준비에 있어서 개인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개입보다 사회적 자원의 활용에 있다. 노년기에 대한 국가 지원이 자녀세대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음이 염려된 바와 같이, 사회자원을 활용한 돌봄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할 것이다. 특히, 이들은 한국 사회 안에서 차별과 편견을 통해 이질감을 경험했다면, ‘노후준비’라는 담론을 통해 함께 늘어갈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인종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을 공동체로 통합시키려는 미국지역사회 개발의 지적·실천적 토대가 되었던 전환학습(이희수, 정미영, 2010)에서 관점전환의 학습이 이루어짐이 결과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참고 문헌

- 강경리, 「성인학습자의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습경험 탐색: 전환학습이론을 기반으로」, 『교육문화연구』, 23권 2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7, pp. 169-197.
- 김도현, 「전환학습의 관점에서 바라본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중언어강사 양성 과정 참여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9권 1호, 한국성인교육학회, 2016, pp. 59-88.
- 김명자, 『중년기 연구』, 교문사, 1998.
- 김미령,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한국노년학』, 28권 1호, 한국노년학회, 2008,, 33-48.

- 김애순, 윤진, 「중년기 위기감(1)」, 『한국노년학』 13권 2호, 한국노년학회, 1993, pp. 1-14.
- 김영순, 김진희, 강진숙, 정경희, 정소민, 조진경, 조현영, 최승은, 정지현, 오세경, 김창아, 김민규, 김기화, 임한나, 『질적연구의 즐거운』, 창지사, 2018.
- 김영순, 오영섭, 「전환학습 관점에서 본 이주민설화조사 연구자의 다문화감수성 발달에 대한 연구」, 『문화교류연구』, 8권 3호,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19, pp. 47-74.
- 김영순, 조영철, 김정희, 정지현, 박봉수, 오영훈, 손영화, 박종도, 이미정, 정경희, 김기화, 박미숙, 오세경, 임지혜, 황해영, 『중국계 이주민의 다문화생활세계 연구』, 북코리아, 2019.
- 김정희, 박지영, 「노인의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권 9호, 한국콘텐츠학회, 2015, pp. 210-222.
- 나지나, 백승애, 신은경, 김미혜(2010), 「결혼 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권 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pp. 29-54.
- 박창제, 「고령자의 재무적 노후준비 경험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998년, 2002년, 2009년, 2015년 비교」, 『사회복지정책』, 44권 3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pp. 163-187.
- 박현식, 이선형, 최은희, 「충청남도 예비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탐색적 연구: 거주 지역 고령화비율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호,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0, pp. 285-315.
- 박현식, 최옥자, 「독일교민의 노후준비 실태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호,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2, pp. 467-487.
- 배문조, 「중년기의 성공적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노후생활준비의식이 노후생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권 1호, 한국가족관계학회, 2011, pp. 45-61.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12월호.
- 보건복지부,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사회연구원, 2015.
- 석상훈, 권혁창, 송현주, 이은영, 오지연, 신혜리, 김근희, 『우리나라 중·고령자

- 의 노후준비 실태와 기대 II: 제3차(2010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 부가조사 분석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2011.
- 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2005.
- 성지혜,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88권 1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pp. 83-115.
- 여성가족부,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http://www.mogef.go.kr>. (2019.11.01. 접속).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사, 2015.
- 윤혜미,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임파워먼트 기반의 사회복지실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권 4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9, pp. 85-108.
- 이미영, 「중년층의 노후준비 감사성향 및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한국과 뉴질랜드 재외동포 비교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2권 3호, 한국웰니스학회, 2017, pp. 291-304.
- 이정훈, 이현우, 이옥자, 「노인의 공식·비공식적 생산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66권 12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14, pp. 287-305.
- 이지용, 『중국 소수민족 문제 현황 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11.
- 이희수, 정미영, 「성인학습에서 성찰과 비판적 성찰의 이론적 계보 분석」, 『한국교육』, 37권 4호, 한국교육개발원, 2010, pp. 121-148.
- 정지현, 김영순, 「중국계 결혼이주민의 진로개발 경험에 나타난 전환학습 탐색」, 『교육문화연구』, 24권 2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8, pp. 727-744.
- 제정임, 『단비뉴스의 대한민국 노인보고서 <황혼길 서러워>』, 도서출판 오월의 봄, 2013.
- 채은희, 「선행연구의 주제어 분석을 통해 본 노후준비의 의미」, 『인문사회2』, 10권 5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9, pp. 355-367.
- 채은희, 박미숙, 「중년기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화교류연구』, 8권 1호,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19, pp. 203- 225.
- 최미화, 「재중동포 이중 언어 교육의 실제와 개선 방안: 연변조선족자치주를

-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1권, 이중언어학회, 2018, pp. 289- 310.
- 통계청, <http://www.kosis.kr>(2019.10.21. 접속).
- 황혜영,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생애경험 탐구: 인정투쟁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일민대학원, 2018.
- Clandinin, D. J. (Ed.), “*Hna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Thor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Inc, 2007.
- Clandinin, D. J.,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와 실천(역: 염지숙, 강현석, 박세원, 조덕주, 조인숙)」, 교육과학사, 2016.
- Ezzy, D., “*Data analysis during date collection*”. *Qualitative analysis: Practice and innovation*, 2002, pp. 60-79.
- Finger, M. & Asún, J. M., “*Adult learning at the crossroads: Leaning our way out*”, London & New York: Zed Books, 2001.
- Kitchenham, A., “*The evolution of John Mezirow’s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Vol.6 No.2, 2008, pp. 104-123.
- Kübler-Ross, E., “*Death: The final stage of growth. Englewood Cliffs*”, NJ: Prentoce-Hall, 1975.
- Kuhn, T.,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 Mezirow, J., “*Transformative theory of adult learning, In M. R. Welton (Ed.), In defense of lifeworld: Cultural perspectives on adult learning(39-70)*”,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 Mezirow, J., “*Transformative learning as discourse*”,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Vol.1 No1, 2003, pp. 58-63.
- Taylor, E., “*An update of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A critical review of the empirical research (1999-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26 No.2, 2007, pp. 173-191.

Exploring Meaning of Middle-aged Chinese Immigrant Women's Retirement Preparation - Focused in the Perspective of Transition Learning -

Chae, Eun-hie · Kim, Young-soon

This study began with the interest of preparing for the old age of Chinese immigrant women who are now in middle age. We used narrative inquiry and Mezirow's transitional learning process for the meaning and reflection of old age preparation. First, the parental influence and practical experience in the experience phase. Second, the type and level of preparation for old age, which ar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in critical reflections. Third, in the rational discourse stage, the government wanted to draw a reflection on other preparations for old age through "If I suddenly get sick" and "Awareness and Problem Solving of Lonely Death." Fourth, the action phase dealt with the national needs with the experience of transition learn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y lived frugally under the influence of their parents, but there was no in-depth reflection on their preparations for their old age. However, it was expanding awareness through participation in this study. Second, the content of the rational discourse recognized it as an event that I wanted to avoid. However, he called for personal efforts in case of emergency and for state support in case of necessit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nd implement an aging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in which all types can be supported, and pay attention to building a care infrastructure utilizing national and social resources for areas where there is a limit to individual efforts.

[Retirement Preparation, Transition learning, Rational discourse,
Narrative Inquiry. / 노후준비, 전환학습, 이성적 담론, 내러티브 탐구]

성 명 : 채 은 희

E-mail : shshmam@naver.com

성 명 : 김 영 순

E-mail : kimysoon@inha.ac.kr

논문접수일 : 2020년 2월 14일

심사완료일 : 2020년 3월 21일

게재확정일 : 2020년 3월 22일